

OHANA



www.pcce.wmu.edu Issu Date Mar. 2024



Table Of CONTENTS



04_ CHRISTIAN EDUCATION COLUMN

기독교교육의 장 / 최윤정

08_ TO HELP CHILDREN COME TO KNOW AND LOVE GOD AND GROW

세대간 통합예배 / 가진수

14_ MY UTMOST FOR HIS HIGHEST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십시오!
나의 희생제물은 살아 있습니까?

16_ PRAYER FOR CHILDREN

자녀와 가족을 위한 기도문

18_ KOREAN TRADITIONAL CULTURE

함께 만드는 '절기음식'
재미있는 전통 놀이 '딱지치기'

20_

PRE-WORSHIP ACTIVITIES

가정예배 시작 전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

22_

WEEKLY BULLETIN OF FAMILY WORSHIP

가정예배 순서지(3월, 4월)



Pacific Center for Culture and Education

PCCE는 성경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정신을 교육과 문화를 통해 전파하고 실현하는 기관으로 릴리재단(Lilly Endowment)과 World Mission University의 지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PCCE는 미국내 한인교회와 한인가정의 기독교교육 그리고 1.5세와 2세 어린이들의 신앙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특히 가정예배와 세대간 예배의 보급을 통해 다음 세대를 거룩한 그루터기로 세움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의 기독교교육을 위한 다양한 리서치와 콘텐츠를 제공하며 크리스천 부모교육도 실시합니다.



부모와 가정, 신앙전수를 위한 기독교교육의 장

1. 기독교교육이란?

교육 (敎育)이란 가르칠 敎와 기를 育의 합성어로 교육이 가지는 중요한 두 측면을 나타내 준다. 敎는 교육자가 피교육자에게 문화, 전통, 생활기술, 풍습, 언어 등을 가르쳐주는 것을 말하며 育은 피교육자 안에서 그가 생득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질과 성품과 성장의 잠재 능력들이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기독교교육은 ‘기독교’라는 수식어를 형용사적 의미로 해석하여 ‘기독교적 교육’이라고 보는 것이다. 여기서는 가르치고 키우는 일인 교육을 기독교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교육’의 개념에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의 성격과 목적을 규명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기독교교육은 피교육자를 가르치고 키우는 일 전체를 기독교적 방향과 기독교적 관점에서 하는 교육을 지칭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교육은 단순히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거나 신자를 키우는 일에 중점을 둘 뿐만 아니라 피교육자가 자신과 이웃과 세계와의 관계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형성하도록 돕고,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며, 그를 바탕으로 교회와 사회와 가정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통전적 의미의 교육’을 의미하고, 이러한 교육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사회의 모든 장에서 이루어진다.

2. 기독교교육과 세 가지 교육이해

첫째, 만드는 교육은 피교육자 보다는 교육자를 교육의 주체로 보고 피교육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와 환경을 중시한다. 인간이란 하나의 백지와 같이 무의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색깔, 어떤 모양의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 다른 인간으로 되어 간다고 보는 것이다. 이 입장은 어떻게 피교육자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기술에 관심이 있으므로 기술적 모델이라 불리기도 한다. ‘만드는 교육’의 입장에서는 학습자의 내부보다는 학습자의 외부, 즉 사회와 환경으로부터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교육의 중요한 과제로 본다. 기독교교육에서도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아 변하는 측면을 중시한다. 신앙은 생득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가르침을 받아 형성되는 것인 만큼 신앙의 공동체로서 가정, 학교, 교회, 그리고 신앙적 환경 등의 영향이 미



쳐 신앙교육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기르는 교육은 만드는 교육과 반대되는 입장이다. 기르는 교육은 피교육자의 내부에서부터 성장의 잠재력이 나와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꽃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서구에서는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학에서 출발하여 ‘아동중심 교육’ ‘비권위적 교육’ ‘개혁 교육학’ 등에 의해 주장되고 있다. 이 교육은 인간을 백지와 같은 상태에서 태어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성장의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본다. 기독교교육에서도 만약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성인이 되어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수하거나 강요할 때 교육적인 효과를 낼 수가 없다. 발달 과정의 단계에 맞는 교육 방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마다 독특한 인격과 특성이 있으므로 이 모든 것



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즉 ‘기르는 교육’으로서의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의 진리를 학습자의 특성과 발달의 척도에 맞게 해석하고 제시하는 노력을 하는 교육이다.

셋째, 만남의 교육이다. 제3의 교육 방법인 ‘만남의 교육’은 인간의 삶 안에서 계획하거나 예측할 수 없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나는 변화를 교육의 중요한 동기로 보는 입장이다. 만남의 교육은 살아가면서 사건이나 사람 또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삶이 변화되는 현상을 ‘교육’의 현상으로 보는 입장이다. 교육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면 인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러한 ‘사건’들인 것이다. ‘만남의 교육’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독교교육은 만드는 교육과 기르는 교육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만드는 교육과 기르는 교육 조차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온전해질 수 있다. 만남의 교육으로서의 기

독교교육은 피교육자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도록 하는 교육이다.

3. 기독교교육 교사로서 부모의 역할

첫째, 리더로서의 역할이다. 리더십을 간략히 정의하면 ‘리더와 따르는 이가 공유하는 목적을 추구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하고 인도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 교사의 리더십은 학생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듯 섬기고 이끄는 능력과 영향력이다.

둘째, 멘토로서의 역할이다. 멘토링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것이다. 멘토링은 관계적인 것이고 이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신뢰와 친밀감 속에서 함께 반응하며, 책임감있는 삶을 지향하며, 궁극적으로 학생(자녀)로 하여금 자신만의 독특함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능력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셋째, 산파로서의 역할이다. 산파는 본인이 직접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여인이 순산하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마찬가지로 교사(부모)가 직접 학생(자녀)을 대신하여 깨달을 수는 없지만 도와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그들이 지식의 아기, 지혜의 아기, 통찰의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 장 계속)



< 통전적 기독교교육 >

Christian Education Column

넷째,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역할이다. 커뮤니케이션은 전달과 수용, 그리고 반응의 과정을 통하여 전달자와 피전달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인류는 구두 커뮤니케이션, 문자 커뮤니케이션, 인쇄물 커뮤니케이션,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시대를 거쳐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을 발전시켜 왔지만 현재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는 수신은 하지 않고 송신만 하는 습관으로 극심한 개인주의를 낳았다는 사실이다. 교실이든 가정이든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송신자는 93%의 비언어로 의미를 전달하고 7%만이 언어로 의미를 전달하게 되므로 커뮤니케이터는 상대방의 호감을 사도록 해야하며 그 호감이 일체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스토리텔러로서의 역할이다. 예수님은 이미지를 사용한 이야기의 대가였다. 소금과 빛의 이미지를 은유적으로 사용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가르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5:13-14). 인간의 영화가 영원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실 때도 들에 흔했던 백합화를 사용하셔서 은유적으로 설명하셨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눅 12:27).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잘 선택된 이미지는 학생(자녀)의 마음에 그림을 그리게 한다. 그림은 학생의 감성과 이성을 자극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골1:15)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응답하게 한다.

여섯째, 상담가로서의 역할이다. 교육은 꼭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 이루어진다. 상담이란 ‘도움을 주는 한 사람이 도움을 받는 자, 즉 내담자가 내어놓는 삶에 관한 다양한 기회와 문제 상황에 대해 그의 행동과 이해와 탐색을 촉진시켜 주는 도움의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상담은 한마디로 사람을 돕기 위해 듣고, 느끼고, 반응하며, 함께 하는 모든 과정이다. 기독교교사는 어떤 사람이 상담을 요청해도 인간적 진지함으로 경청하고 학문적 전문성으로 내담자의 마음과 상황의 상호관계를 성실하게 연구하는 기독교교육 상담가가 되어야 한다.

일곱째, 비판적인 성찰자의 역할이다. 기독교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배우는 사람이다. 진리 앞에서는 교사나 학생이나 다 학습자가 되어야 한다. 곧 교사는 ‘teacher learner’가 되어야 하고 학생은 ‘student learner’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기독교 교사는 자신의 생각과 가르침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교사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빠지기 쉽다. 교실의 분위기는 대개 교사에 의해 장악되고 교실 안에서 자신의 가르침과 학습의 전 과정에서 책임을 지다보면 자칫 자기도취에 빠지기 쉽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사는 늘 비판적인 성찰 훈련을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부모도 신앙적 경화병에 걸려 자신의 신앙이 화석화되는 것을 늘 조심하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늘 겸허한 자세로 학습자의 모습을 스스로 자처할 수 있어야 한다.

4. 기독교교육의 장으로서 부모와 가정

(1) 부모와 자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기독교교육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터전이다. 자녀는 가정에서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인격으로 성장해나 가게 된다. 부쉬넬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보았으며, 아기는 자신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의지와 삶 속에서 살며, 부모의 성품의 모형 안에 있으며, 부모의 모든 미덕, 신앙, 기도, 약속들이 그의 것이 된다고 했다. 가정에서 부모의 이미지가 자녀를 교육한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 이를 ‘각인현상’(imprinting)이라고 하는데 각인 현상은 ‘새기다’ ‘도장을 찍다’ 등의 뜻으로 부모의 태도나 행동이 이미지가 되어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그 자녀들의 인격과 삶이 형성된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으며 자라간다면 ‘사랑의 하나님’의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난폭한 부모 밑에서 자라게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와같이 부모는 자녀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이다.

(2) 가정예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가정에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가르쳤는지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구전 (oral tradition)을 통한 교육을 했다. 신명기 6장4절의 쉼마가 바로 그것이다. 또 종교적 의식과 절기를 통한 교육이다.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의식은 자녀교육을 위한 소중한 경험이 된다. 할례의식과 성인의식 (Bar Mizwah)등이 그것이다. 오늘날 이러한 구전과 종교적 의식을 계승한 것이 가정예배라 할 수 있다. 자녀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인데, 이러한 배움이 가장 잘 일어날 수 있는 장이 가정예배 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으며,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선생님을 존경할 수 있고, 이러한 자녀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실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교육하는 가정예배는 가정에서 기독교교육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이다.



5. 초대교회 전승에 따른 기독교 가정교육의 장

(1) 케리그마를 통한 가족 영성의 회복

케리그마는 복음선포로서 가정교육의 중심에 위치한다. 가정은 하나의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정 안에서 복음이 선포되며, 가족 구성원이 모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영성이 회복되어야 한다. 가정예배, 가족수련회, 가족 경건의 시간 등

(2) 코이노니아를 통한 가족 관계의 회복

가족 커뮤니케이션은 오늘날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회복되어야 하는 내용이다. 가족들 간에 권위주의적이거나 형식적인 의사소통이 아닌 상호존중을 전제로 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회복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통한 섬김의 실천을 통해 사랑의 공동체로 가족이 회복되어야 한다.

(3) 레이투르기아를 통한 가족 예전 및 문화의 회복

함께 모여 기도하고 빵을 나누어 예수를 기념하는 예전을 의미한다. 가족이 둘러앉아 나누는 식탁은 성례전의 의미를 지닌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족 구성원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맞이하는 출생, 유아세례, 돌, 생일, 입교, 성년식, 입대, 결혼, 회갑 등에 가족이 함께 모여 예식을 나눔으로써 서로를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 건전한 가족문화를 위해 축제와 나눔이 있는 이러한 가족 예전이 필요하다.

(4) 디다케를 통한 가정교육의 회복

가정이 지녀할 할 교육적 기능이 회복되어야 한다. 오늘날에는 세대 차의 격차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서로에게서 배우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가정에서의 교육은 공식적인 교육과정 (formal curriculum)만이 아닌 잠재적 교육과정 (hidden curriculum)을 통해서도 이루어짐을 명심해야 한다.

(5) 디아코니아를 통한 가정 선교, 봉사의 회복

기독교 가정교육에서의 디아코니아는 가정의 가정 밖을 향해 선교하는 것을 일컫는다. 가정은 가족 구성원끼리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이면서도 동시에 가정 밖을 향하여 사역하는 ‘선교적 공동체’이다. 교회에만 선교적 사명을 부과하고 가정은 소비적 구조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 가정이 ‘사역 공동체’로 회복되어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월드미션대학교

최윤정 교수

To help children come to know and love God and grow in faith

세대간 통합예배

최 근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이다. 교회가 하나님을 구세주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면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계속 이어가는 것이 의무이며 특권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갈수록 인구가 감소되고 있으며, 교회 역시 어린이들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신앙의 강건함과 유대감도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는 믿음의 세대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성인들뿐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신앙의 미래는 없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교제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세 가지, 찬양과 기도, 말씀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곧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곧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된다.

이 논문은 교회의 중요한 기둥인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믿음이 자라도록 돕기 위한 것이며, 여기서는 특히 예배의 본질을 다루고자 한다. 더 나아가 통합 예배를 통한 실제적인 어린이들의 신앙 양육과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살펴보겠다.



1. 세대간 통합예배의 필요성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주일학교는 18세기 말 필라델피아에 주일학교협회가 생기면서 발전되었고, 우리나라에는 선교사들을 통해 들어오게 되었다. 이후 한국의 모든 교단에서 수용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이후 주일학교는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게 되었는데, 그것이 예배다. 예배를 각각 따로 드리다 보니, 주일학교 예배는 주로 부교역자들이 설교를 하게 되었고, 담임목사의 말씀의 통일성을 잃어가는 단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가족이 예배에서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유하지 못하게 되면서, 특히 어린 자녀들이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믿음이 성장해 가는지 알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7-80년대 어린 시절에 신앙 생활한 분들은 대부분 교회의 모든 장년 예배에 참석했었다. 당시 말씀에 대해 잘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모든 예배에 부모 세대와 함께 예배 드리면 점점 성장해갔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나는 주일학교 예배는 장년들과 모두 한 자리에서 함께 드리고, 성경 공부나 분반공부, 기타 프로그램은 예배가 끝난 후 각각 진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한 달에 한 번이든 아니면 그 이상이든 모든 세대가 자주 함께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좋다. 부모와 어린 자녀가 함께 예배에 참여해, 들은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그 말씀에 대해 어린 자녀에게 묻고 대답하며 신앙의 성숙을 돕고 확인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끔은 자녀들도 말씀의 궁금증으로 인해 부모에게 물어보기도 한다.

한국교회에서의 주일예배는 어린이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물론 그들은 각각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나 예배는 근본적으로 공동의 잔치다. 그들과 함께 드리는 공동의 예배가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통합 예배에서의 찬양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 교회의 담임목사와 예배의 지도자들은 공통의 찬양을 설문 조사하여 취합하고, 어린이와 장년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부르는 찬양들을 수렴해 나간다면 좋을 것이다.



2. 세대간 통합예배의 내용

지금과 같은 위기의 시대에 어린이들을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열쇠가 ‘예배’라면 어떻게 예배를 통해 그들을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깊은 영적 교제로 이끌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의 요소들, 즉 찬양, 기도,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첫째, 찬양의 균형이다. 주일 장년 예배에서 1세대가 선호하는 찬송가(Hymns)와 합창(Choral) 중심의 찬양과 다음 세대들이 선호하는 ‘찬양과 경배(Praise & Worship)’ 스타일의 찬양이 균형 있게 불릴 수 있어야 한다. 한국 교회 대부분의 주일예배는 1세대의 찬송가 선호로 인해 찬송가를 고집하는 경향이 강하다. “1세대 장년에게 왜 주일예배에 찬송가만을 고집하는가?”라고 물으면 찬송가가 위엄 있고 거룩하기 때문이라 말한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자신이 아는 찬양과 4부 형태의 성가의 형식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에 있음을 기억하자. 1세대의 거룩한 섬김과 양보를 통해 예배에서 다음 세대가 세워져 갈 수 있다. 1세대가 주인 되려고 하지 말고 다음 세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기도에 참여시켜라. 요즘 예배 중 가장 어려운 분야가 기도라고 한다. 사실 기도만큼 강력하게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없다. 그럼에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의 시간은 짧아지고 있으며, 어린이들에게도 기도의 약함은 영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얼마 전만 해도 한국에는 참으로 기도원이 많았다. 당시 어린이들의 모든 수련회는 대부분 기도원에 갈 정도로 기도의 열정이 있는 시기였다. 하지만 지금 기도하는 어린이들을 예전만큼 찾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지금의 어린이들에게 그 당시 기도원 집회가 하루에 6번 있었다고 이야기하면 대답이 어떨지 궁금하다. 과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식상하게 받아들이겠지만 기도는 양과 질과 시간에 비례한다. 요즘은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에서도 기도에 참여하는 시간이

Christian Education Column

제한적이다. 기도는 점점 교사들과 설교자와 리더들의 몫이 되어가고 있다.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가 기도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배려해야 하며 기도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능동적인 기도의 참여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통성기도나 합심 기도를 늘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셋째, 말씀을 강화하는 것이다. 오래전 교회의 주일학교 모임에는 말씀 암송대회를 비롯해, 성경을 틀리지 않고 읽는 대회, 성경 퀴즈대회 등 다양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들이 많았다. 나의 주일학교 시절에는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는 시간도 많았다. 성경을 접할 기회가 많았으며, 뜻을 잘 알진 못해도, 성경의 인물과 사건은 충분히 기억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지금의 예배에서 어린이를 위한 성경공부 시간과 열정은 과거에 비해 많이 약화되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빈약함은 영적 능력의 약함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에게 조금 더 말씀을 가까이할 수 있는 강한 목적의식이 1세대에게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금의 시대가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학업 경쟁이 치열한 시대라 할지라도 우선 수위가 무엇인지 자주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한다. 주일예배를 포함해 자주 말씀을 낭독하고 외우고 말하게 해야 한다. 세계의 정치와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이스라엘 민족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늘 암송하고 외운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넷째, 성찬에 능동적으로 참여케 하라.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재림에 대한 소망, 기쁨이 담겨있는 예배에서 가장 상징성이 강한 예배 예식이다. 그럼에도 성찬은 지금의 시대에 가장 약화된 예식이 되어버렸다. 웨버 박사는 지금의 교회가 가장 회복되어야 할 예배의 요소로 성찬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성찬이 회복되지 않는 주일예배는 갱신되지 못한 예배로 남아있게 되며, 고대의 성찬 예식이 회복되어 미래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성경적인 참된 예배라고 주장했다.

요즘 들어 편리함으로 인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빵과 포도주를 앞에 갖다 주는 성찬식이 점점 많아지는데, 성찬식은 무조건 앞으로 나와야 한다. 그것이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예식에 참여하는 마음 자세를 갖출 수 있다. 어린이들이 예배에서 능동적인 마음과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나오게 하여 직접 빵과 포도주를 떼고 마실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좀 더 하

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스도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혹 세례(침례)를 받지 않은 어린이들은 성찬에 참여는 하지 않지만, 함께 나오게 해서 머리 위에 안수기도를 해주면 참관자가 아니라 참여자의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예배는 편한 것이 아니다.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주 기억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고 불편하게 만들라.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에 맡기자. 위기의 시대가 도약할 시기다. 조금만 영적인 눈을 들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면 어린이는 끌어안아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즉시 교회의 '주인'으로 대우해야 한다.

3. 통합 예배의 성찬 회복

어린이를 위한 성찬은 중요한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예배의 상징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어린 세대들은 1세대에 비해 시각을 포함한 공감각이 뛰어나다. 그러므로 성찬은 예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동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중요한 예배의 예식이다. 최근 교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찬 예식은 점점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모든 교회 공동체의 예배의 감동을 위해서라면 성찬 예식의 시간을 조금 더 늘여가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성찬 예식은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이 이상적이다.

성찬의 준비는 세 가지 점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성찬'의 성경적 의미를 되살리면서 진행하는 것이고, 둘째, 세례(침례)를 받지 않은 자녀들도 모두 나와서 머리에 축복 기도해주는 것이며, 셋째, 성찬 예식에서의 찬양을 3가지 주제에 맞게 잘 정하는 것이다.



우선 성찬의 세 가지 성경적 요소를 최대한 살린다. 첫째, 기념(Remembrance)이다. 성찬 위원이 있다면 나와서 성찬보를 열고 준비하면서 아래 성경을 읽으며 시작한다. 모두 앞으로 나와 자녀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주고, 세례(침례) 받은 성도들은 떡을 떼며 포도주를 마신다. 그리고 찬양은 보혈의 찬양이 좋고, 물론 찬송가에서 선곡해도 좋다. 보통 빠르기로 “구주 예수 의 지함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등의 찬양을 앞의 중창단 또한 찬양대가 부르면서 인도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자유롭게 따라 부르도록 한다. 아래 성경 말씀을 한 번에 또는 2-3번 나누어 적절하게 낭송하거나 읽는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전 11:23-29)

성찬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성찬을 마친 성도들은 각자 회개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기도를 한다. 어수선하지 않도록 동선을 지혜롭게 잘 만들고, 기념의 의미가 충분히 느껴지도록 배려해주는 것이 좋다.



둘째, 감사(Eucharist)다. 떡을 떼면서 감사의 찬양을 연주하거나, 함께 부른다. 찬양을 함께해도 좋고, 연주를 해도 좋다. 또는 2-3명 함께 듀엣이나 중창으로 찬양해도 좋다. 중요한 것은 “좋은 하나님” 앨리슨 헌틀리(Alison Huntley)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Thank you Jesus For Your Love To Me)” 등 감사에 대한 찬양을 선곡해야 한다. 다음 성경 말씀을 적절하게 낭송하거나 읽는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 6:35).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요 6:47-51).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요 6:58).

셋째, 교제(Koinonia)다. 성도 중 혼자 특송을 해도 좋고, 중창도 좋다. 주제는 어느 것도 괜찮다. 늘어지거나 어둡지 않은 찬양이나 찬송가로 우리의 신앙공동체가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임을 알게 하자. 로저 스트레이더(Rodger Strader)의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만남을(Together)’ 토미 쿼스(Tommy Coomes)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As We Gather)’ 등과 같은 찬양을 선곡하면 좋다. 그리고 아래 성경 구절들을 하나 또는 두세 구절 낭독하면서 간단한 멘트의 말씀을 전한다. 아래 성경 말씀을 적절하게 낭송하거나 읽는다.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전 11:16-17).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귄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7)

Christian Education Column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요 6:53-57)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엡 1:7-10)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골 1:19-20)

성찬은 성찬보를 덮는 중에 찬양 부를 곡을 반주하면서 마무리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만남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등과 같은 찬양을 부르며,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의 중요한 의미를 되살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소망으로 나아간다.

4. 통합예배의 개념 인식

· 동기

첫째 왜 부모들의 신앙은 좋은데 신앙의 대는 이어지지 않는가? 둘째, 왜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대학, 청년부가 되어 약 5% 정도밖에 남지 않는가? 셋째, 왜 세대 차이가 크게 일어나며 부모 공경이 없는가? 넷째, 왜 주일 낮 예배와 다른 예배의 숫자가 큰 차이를 보이는가? 다섯째, 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교회, 가정, 학교, 사회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는가? 여섯째, 왜 사회에 선한 영향력 있는 자로 살지 못하는가?

· 목적

통합 예배는 세대의 차이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으며 성숙한 신앙의 성장을 촉진하게 한다. 부모들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며, 자녀들을 구원받게 하고, 설교와 성만찬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신앙 전수가 잘 이루어지게 하는데 있다.

· 특수성

통합 예배의 특이성은 세대 간 시간이 같고 장소가 같으며 동일한 성경을 사용하고 같은 찬송가를 부르며 같이 설교를 받고 동일한 기도제목으로 기도한다.

· 참여도

오전 예배를 함께 드린 후 점심시간에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나누어 선생님들과 즐거운 식사를 한 후 지난 주의 목사님 설교를 함께 나누며 실생활에 적용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예배에도 함께 찬양 예배를 드린다.

· 장점

동일 공간에서 동일한 시간에 같은 성경과 찬송가를 사용하며 담임 목사의 말씀과 동일한 찬송가로 찬양하며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므로 모든 신앙에 일체감을 이룬다. 어린이들의 언어가 달라지며 신앙 성숙이 빠르고 예배가 생동감이 넘치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한다.

5. 통합예배의 실제

(1) 세대 예배의 목적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대하 20:13)



- 통합 예배는 ‘분절’이 아닌 ‘통합’,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지향한다.
- 부모-자녀-청소년의 3세대가 함께하는 가족공동체를 꿈꾼다.
- 교회마다 설치된 유아실은 ‘유배실’과 같으며, 영적으로 갈급한 엄마들은 전쟁을 치르다 돌아옵니다. 말씀 잔치에 누구도 소외되어서는 안 되며, 소란스러움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학습한다.
- 부모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은 예배자로 서게 되며, 서로에게 좋은 격려자요 지지자가 된다.
- 오후에는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학습이 있다.
- 교회의 예배를 넘어서 가정 예배가 살아 숨 쉬어야 한다.

(2) 통합 예배의 목적

통합 예배의 목적은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최대한 자녀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평안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이들이 조금 떠들고 혹은 돌아다녀도 성도들은 예배에 온전히 집중한다. 설교가 끝나고 모든 어린이를 위해 축복 기도해준다. 성경 말씀에 따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모두 앞으로 나와서 목사가 개개인 자녀들에게 축복기도를 해준다.

3) 발전 방안 및 요소

어린이들에게 영적 신앙의 자산을 물려주기 위해 여러 방안들이 있지만 결국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록 영적 근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 예배는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이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 어린이들의 영적인 강건함은 가장 가까운 부모로부터 나온다.
- 지속적인 영적 습관을 통한 삶의 예배를 배우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어린이들이 원하는 비본질의 모든 것을 포용하고 배려해야 한다.
- 어린이에게 예배자라는 본질과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를 늘 인식시켜준다.

결론

오랫동안 한국교회의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는 특성화되고 전문화된 예배의 형태로 드러왔다. 최근 들어 예배가 중요해지고, 분리해 드렸던 예배의 단점들이 노출되면서 함께 드리는 ‘통합 예배’에 관심을 갖는 교회가 많아졌다.

통합 예배는 어린이들이 부모의 신앙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본질이다.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오랫동안 주일학교라는 테두리에서 느슨한 신앙 양육을 해왔다. 교회에만 가면 신앙이 자라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했다. 지금부터 교회를 비롯한 예배 공동체는 어린이들을 위해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안에 속히 집중해야만 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찬양과 기도, 말씀이 요소인 예배밖에 없다. 주일학교라는 근대적 시스템의 장점은 남겨두고 큰 틀인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통합 예배는 중요한 대안이다. 부모와 함께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부모 세대의 신앙 유산을 피상적이 아닌 실제적으로 전수할 수 있다. 갈수록 세속의 영향이 점점 커지는 이 시대에 어린이들을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잘 양육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길 밖에 없다. 이를 위해 교회와 예배 공동체, 가정과 부모 세대는 어린이들의 신앙이 잘 자라도록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런 점에서 통합 예배는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갈 뿐 아니라, 신앙적으로 양육되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중요한 방안이다.



My Utmost for His Highest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십시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요 14:9)

이 말씀은 상대방을 꾸짖거나 놀라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친숙해지기가 가장 어려운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던 오순절 전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단지 악령을 이기는 힘을 주시고 부흥을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었습시다 (눅 10:18-20). 이 정도만 하더라도 꽤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훨씬 더 친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성령 안에서 나누게 되는 예수님과 의 엄청난 친밀함입니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하리라"(요 15:15). 진정한 친구 관계는 이 땅에 흔치 않습니다. 진정한 우정이란 생각과 마음과 영이 같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축복도 받고 주의 말씀도 머리로 알지만 정말로 그분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요 16:7)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을 통한 관계 속에서 제자들을 이끌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그분의 제자가 예수님께로 한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가 외부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요 15:1-4).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또한 누군가로부터 동정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비통한 마음이 전혀 없이 언제나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사람은 자신의 이미지를 남기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남깁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은 오직 예수님만이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말로 다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십니다.



나의 희생제물은 살아 있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창 22:9)

우리는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죽음'이란 희생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통한' 희생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원하십니다. 곧 우리의 '삶'이 희생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와 함께 죽는 자리까지 가겠나이다"가 아니라 "제가 주님과 함께 죽어 제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제물이 되게 하겠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진행됩니다. 주님은 어느 곳에서도 모든 것을 버리기 위해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가치 있는 단 한 가지, 곧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러한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일체가 됨으로써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

께 산 제사로 드리게 됩니다.

죽음을 위해 당신의 삶을 주께 드리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산 제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거룩하게 된 당신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하십시오. 이러한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사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스왈드 챔버스



Prayer for Children

천국같은 가정

주님, 우리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 되게 하소서. 천국 보좌에 주님께서 앉아계신 것처럼 지상의 작은 천국인 우리 가정의 한 가운데에 주님께서 좌정하시옵소서.

풍량이 일거나 거친 바람이 불 때에, 금방이라도 우리 가정의 배가 전복될 것 같은 위기에서도 주님께서 계시므로 안전케 하소서. 주님께서 계시면 침몰할 수 없다. 주님께서 명하시면 바람도 바다도 잠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가정, 언제나 평강이 넘치는 가정되게 하소서.

찬양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는 천국처럼, 우리 가정에서도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가족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케 하소서. 모든 일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되게 하소서.

세상 속에서는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될지라도 가정 안에서 그 모든 눈물이 씻어지게 하소서. 가족 간에 갈등도 다툼도 사라지게 하시고, 이전에 있던 모든 상처도 깨끗이 치유되게 하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거룩한 흰옷을 입게 하소서. 복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세상 속에서는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소서. 영적 핏박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여 저마다 의의 면류관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
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
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4-7)

Korean Traditional Culture

함께 만드는 '절기음식'

우리의 전통풍속을 일컬어 '세시풍속'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세시'란 '한 해의 절기나 달, 계절에 따른 때'를 말합니다. 우리의 전통문화와 풍속은 계절의 흐름에 반응하며 발전해왔던 것입니다. 오늘은 세시 명절음식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세시 명절음식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변화와 계절의 표준이 되는 절기맞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연에 반응하며 절기를 나누고 영양가가 풍부한 제철 식자재로 음식을 만들어오던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지요. 제철 식자재로 만든 음식은 조상들이 한 해를 버티는 든든한 힘이 되었답니다. 지난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먹었던 떡국, 삼복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보양식으로 먹었던 삼계탕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일상에 남아있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서구화된 식생활과 제철 구분의 명확하지 않은 식자재들이 많아져서 더이상 절기 음식으로서의 의미는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로 재미있게 요리할 수 있는 동그란 절기음식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꽃에 곁들인 향긋한 화전]

삼월 삼짇날 교외나 산 같은 경치 좋은 곳에 나가서 음식을 먹고 꽃을 보며 노는 놀이를 화전놀이라고 했습니다. 진달래꽃으로 화전을 지저먹고 노래와 춤을 추며 즐기던 여성들의 놀이였지요.

화전놀이는 이미 신라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신라의 궁인(宮人)들이 봄놀이를 하면서 꽃을 꺾는데서 비롯되었다고 해요. 집안의 여성들, 특히 시집은 며느리들이 함께 모여 놀이를 위해서 장막을 세우고 참꽃으로 지짐을 지저 먹는 봄나들이로 발전하게 되었지요.

가족이 함께 모여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식용 꽃으로 화전을 지저보세요. 아이들은 예쁜 꽃잎으로 아기자기하게 장식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식용 꽃 종류

팬지, 매화, 동백꽃, 진달래, 마리골드(금잔화), 딸로(당아욱), 달리아, 한련화, 장미, 제라늄, 아카시아, 국화, 유채꽃, 제비꽃 등



위 이미지 클릭 동영상 보기 : 화전 만들기(채널, 가벼운날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시편 145:15)

'모든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콜'은 '모두'라는 뜻입니다. 사람 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진 모든 피조물을 가리키지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에게 필요한 양식을 때에 맞추어 일정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선조들의 아버지의 아버지, 곧 초기 인류 때부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한 지혜가 우리 선조들에게도 고유한 문화로 발전되고 전통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비록 인류가 흩어지기 전에 알았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희미해졌지만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며 세시 명절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상들이 물랐던 하늘의 신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때와 절기를 따라 먹을 재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 가족과 함께 예쁘고 향긋한 화전을 만들어 아름다운 자연에서 하나님을 찬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재미있는 전통 놀이 '딱지치기'

종이로 만든 딱지를 땅에 놓고, 다른 딱지로 쳐서 뒤집거나 일정한 선 밖으로 쳐내어 상대방의 딱지를 따먹는 아이들 놀이로, 지방에 따라서 '딱지치기' '때기치기' '빠치치가' '표치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종이가 귀했던 옛날에는 책표지나 닥종이를 여러 겹 붙여 만들거나, 재래식 현 장판을 사각형으로 오려서 만들었다. 이후 달력이나 비료포대 등과 같은 종이를 이용하여 크게 접은 '왕딱지'를 만들어 놀았습니다.



딱지치기 동영상 보기 : 전통놀이를 부탁해! (채널, 반올림스쿨)



딱지치기의 방법은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독특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넘겨먹기** : 가위바위보를 하여 누가 먼저 칠 것인지 정한다. 진 사람은 자기 딱지를 땅에 대고 이긴 사람은 상대의 딱지를 쳐서 넘긴다. 딱지가 뒤집히면 그 딱지를 상대방에게 주어야 한다.
2. **날려먹기** : 한 손으로 딱지를 잡고 앞으로 날려서 더 멀리 날아간 사람이 나머지 사람의 딱지를 갖는다. 날려먹기는 멀리 날리기도 하지만 선을 그어 놓고 그 선에 딱 맞게 날리는 사람이 딱지를 따는 것으로 할 수도 있다.
3. **벽치기** : 딱지를 벽에 대고 때려서 벽에서 더 멀리 딱지가 튀어나오면 상대의 딱지를 따는 것이다.
4. **밀어내기** : 땅바닥에 원을 그려서 원 안에 딱지를 놓는다. 각자 한 개만 할 수도 있고 일정한 개수를 정해 각각 내놓고 하기도 한다. 자신의 딱지로 상대의 딱지를 쳐서 원 밖으로 나가게 하면 상대의 딱지를 따는 것이다. 이때 실수로 자신의 딱지가 원 안에 남게 되면 그것도 잃게된다.

놀이 하기

딱지를 접어 땅에 놓고 순서를 정한 후, 이긴 사람이 먼저 본인의 딱지로 상대방의 딱지를 힘껏 내리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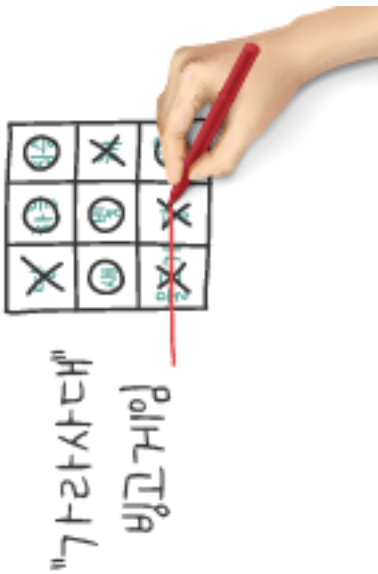
이때, 바닥에 있던 딱지가 뒤집어지게 되면 내리쳤던 선수가 따먹게 되는데, 뒤집히지 않으면 치는 순서가 바뀐다. 한쪽 딱지가 뒤집어질 때까지 반복한다.



예배 전 활동

준비물 : 펜, 종이(A4)

1. "가라사대"를 덧붙여 단어를 말할 때만 빙고 표의 단어에 동그라미를 표시할 수 있어요.
2. 종이에 아홉 칸이나 스물다섯 칸의 빙고 표를 그리세요.
3. 표 안에 천지창조와 관련된 단어를 적거나 그림을 그리세요.
4. 한 사람씩 단어를 외치세요.
 - (1) '가라사대'를 덧붙여 외칠 때만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어요.
 - (2) '가라사대' 없이 외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릴 경우 그 단어에 X 표를 하고 다시는 사용할 수 없어요.
5.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동그라미 선이 완성될 때 '빙고'를 외치세요.
6. 가장 빨리, 많은 빙고를 외친 사람이 승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 1:1)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의 말씀이자 하나님이시라고 소개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았으며 파도와 풍랑에 명령하여 잠잠케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답니다.

준비물 : 펜, 종이(A4)

1. 끝말잇기로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2. 가로, 세로 열 칸씩 모두 백 칸의 표를 그리세요.(또는 PC 문서로 그려 출력)
3. 가장 왼쪽 첫 번째 칸(노란색 칸)에서 시작하여 가장 오른쪽 아래 칸(하늘색 칸)에 도착하도록 해야 해요.
3. 가장 왼쪽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에 각각 '순', '종'을 쓰세요.
4. 다음부터는 중간이나 끝말에 이어서 낱말을 적으며 천국으로 향해 나아가세요.

									이
						야			신
						나	했		부
				거	기	만			
				전					
		나	마	상	자				
			나						
		했	밖						
씨	이	정							
다									

끝말잇기(날말 퍼즐) 놀이를 할 때 제시된 날말과 이어지지 않는 엉뚱한 날말을 쓰면 틀린 것이 되어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틀린 것이 되지요. 하나님의 뜻에 도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고통 가운데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지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곧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어요.



03. 레이저 빔 장벽 통과하기

준비물 : 붉은색 털실(많이), 스톱워치, 테이프

1. 집 안의 복도나 통로를 찾으세요. 마땅한 통로가 없다면 의자나 소파, 테이블 등을 양쪽으로 나란히 배치해 통로를 만들 수 있어요.
2. 털실을 자유롭게 거미줄처럼 양쪽을 왕복해가며 타이트하게 붙이되 몸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간격으로 만드세요.
3. 다 만들었으면 레이저 빔을 건드리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지 도전해 보세요.
4. 레이저 빔을 건드린 사람은 재도전해 보세요.
5. 누가 가장 빨리 통과했는지 스톱워치로 시간을 재보세요.

레이저 빔에 맞는 사람이 죽게 되듯이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씻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지요. 동물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예요. 그렇지만 매번 동물을 희생시켜야 했으며 그것 또한 일시적인 것이었죠. 하나님은 완전하고 영원한 죄 용서의 방법을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는 것이었지요.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 갈라지고 열렸어요. 마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레이저빔 장벽이 다 사라진 것 같이 말이지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04. 주의 이름 부르기 윷놀이

준비물 : 윷, 말판, 말(1~4개)

1. 게임을 시작하기에 앞서 로마서 10장 13절을 암송하세요.
2. 말판 곳곳에 '죄 항목이 쓰인 수렁'을 정해 주세요. 죄의 경중에 따라 뒤로 한 칸 또는 여러 칸 물러가기로 설정해 주세요.
3. 말판에 두 군데 정도의 '예수님' 자리를 정해주세요. 말이 예수님 자리에 들어갔을 때 모두가 '하나, 둘, 셋'을 외치세요.
4. '하나, 둘, 셋'을 외치자마자 말의 주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을 외치세요. 그러면 말들은 천국(HOME)으로 단번에 들어가요. (만약 외치지 못한다면 기회를 잃게 돼요.)



여러분이 윷놀이를 했을 때에는 '예수님' 찬스가 아니더라도 어렵게 HOME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천국)께 나아갈 수 없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동물을 희생시키는 제사를 통해 죄용서를 받아 거룩해지고 온전해져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도 했었죠. 그러나 매번 그렇게 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완전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 제물로 삼아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분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죄용서와 거룩함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평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였지요. 자, 모두 함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이름을 찬양하며 가정예배로 나아갑시다.

01.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기도 | 하나님,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받아 주시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의지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해 주세요.

말씀 | 시편 42:1~5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시편 기자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해요. 전에는 성전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시편 기자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더욱 소망을 두며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려요.

- 나눔** |
1.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던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어떤 다짐을 했나요?(5절)
 2. 나는 힘들 때 무엇을 또는 누구를 바라보고 기대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눔 |

.....

.....

.....

기도 | 하나님! 늘 저희와 함께하시며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주님을 찬양하게 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02. 힘과 도움 되시는 하나님

기도 | 하나님,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해 주세요.

말씀 | 시편 46:1~3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백성의 삶에도 땅이 뒤집히고 폭풍이 몰아치고 바닷물이 쏟아지는 것과 같은 심한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살아 계신 하나님이 그분 백성에게 힘과 도움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나눔 | 1.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나요?(1절)

2.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피난처요 힘이요 도움이시라고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세요.

나눔 |

기도 | 하나님, 힘과 도움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03.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기도 | 하나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세요.

말씀 | 시편 51:10~12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다윗은 하나님 은혜를 입어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큰 죄를 저질렀어요.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음을 알고 회개 기도를 드려요. 다윗은 자기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회복의 은혜를 간구해요.

나눔 | 1. 죄를 지은 다윗은 어떤 일을 가장 두려워했나요?(11절)

2. 나는 어떤 경우에 죄를 짓는지 생각해 보고, 더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나누어 보세요.

나눔 |

기도 | 하나님,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크든 작든 어떤 죄라도 멀리하는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닮아 가도록 도와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04.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찬양

기도 | 하나님, 저희 가족을 예배 자리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격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세요.

말씀 | 시편 57:7~11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위협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자신에게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를 없앨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고난 중에도 그는 하나님만이 자신을 도우시고 살리신다는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려요.

나눔 | 1. 죽음의 위협 속에 있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결단한 것은 무엇인가요?(7절)
2.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을 보며,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찬양은 무엇인지 그 이유와 함께 나누어 보세요.

나눔 | _____

기도 |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고백이 제 입술에 넘치게 하시고, 다른 무엇에도 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05.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

기도 | 하나님, 저희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해 주세요.

말씀 | 로마서 5:6~8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하나님 사랑은 그분 백성이 아직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나타났어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는 있어도,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도 갖추지 못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어 주셨어요.

나눔 | 1.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나요?(6, 8절)
2. 내가 받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은가요? 그 방법도 생각해 보고 함께 나누어 보세요.

나눔 | _____

기도 | 하나님, 연약한 죄인인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Storytelling

가족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06. 일생일대 중요한 당부

기도 | 저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세요.

말씀 | 열왕기상 2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다윗은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첫째는 강해져서 대장부가 되고, 둘째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잘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흥망은 하나님께 달려 있기에 다윗은 '말씀 순종'을 강조했어요.

나눔 | 1.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자신에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한 것은 무엇인가요?(3절)

2. 부모님이 자녀에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싶은 것을 말해 보세요. 이어서 자녀가 부모님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을 말해 보세요.

나눔 | _____

기도 |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일임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당부를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즐거이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저희 가족이 되게 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07. 오직 지혜를 구하는 사람

기도 | 하나님, 저희 가족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읽고 나누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 가고 사랑하게 해 주세요.

말씀 | 열왕기상 3장 4~12절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왕이 된 후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 즉 하나님께 1,000마리 짐승을 번제로 드렸어요. 솔로몬에게 감동하신 하나님은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소원을 말하라고 하셨어요. 솔로몬은 다른 무엇보다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은 지혜를 구한 솔로몬을 기뻐하셨어요.

나눔 | 1. 소원을 말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는 무슨 이유로 그것을 구했나요?(7~9, 11절)

2. 학생, 직장인, 사업가, 주부, 사역자 등 각자의 자리가 있어요. 내게 주어진 자리를 잘 감당하기 위해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나누어 보세요.

나눔 | _____

기도 | 하나님, 지혜를 구할 때마다 나무라지 않으시고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크고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작고 쉬운 일임을 기억하며, 저희 가족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08.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기도 | 하나님, 분주한 일을 내려놓고 저희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빈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세요.

말씀 | 열왕기상 8장 6~11절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성전 건축을 마친 후 솔로몬은 언약궤를 옮겨 왔어요.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중요한 물건으로, 모세 때 만든 것이에요. 언약궤를 지성소의 준비된 자리에 들여놓자,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구름의 모습으로 성전 안에 가득한 하나님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임을 의미해요.

나눔 | 1. 제사장이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옮겨 놓고 나오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6, 10~11절)

2.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언제 어떻게 느끼나요?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까요?

나눔 |

기도 | 하나님, 제가 아무리 부족해도 저를 사랑하시고 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이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09.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성

기도 | 하나님, 저희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어요. 저희를 귀하게 여겨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해 주세요.

말씀 | 열왕기상 10장 4~9절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이 강대한 나라를 이룬 이야기가 주변 민족에게 퍼졌어요. 스바의 여왕은 그 소문을 듣고 직접 확인하러 금은보화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이 소문보다 더 대단하자, 여왕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나눔 | 1. 소문을 듣고 와서 솔로몬을 직접 만나고 왕궁을 둘러본 스바의 여왕은 어떤 고백을 했나요?(6~9절)

2. 솔로몬에게 지혜와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복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나눔 |

기도 | 지혜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복이 엄청나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사람들에게 기쁘게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P : (213) 388-1000
E : pcce@mail.com
w : www.pcce.wmu.edu

A : 500 Shatto Place Suite 200.
Los Angeles,
CA 90020

